

북러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구조적 함의 -

연 담 린**

목 차

- 서론
-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북러 군사협력 및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안보 질서
-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히 심화된 북-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국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한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군수물자 부족에 대응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기술 확보와 국제 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북러 협력을 동북아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나 일시적 전술 연합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북러 간 협력이 제3국의 전쟁에 구조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안보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이 협력이 정찰위성, 미사일, 사이버전 등 첨단 군사기술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정치적 파급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러 군사협력의 성격과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특히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 개념을 토대로, 북러 협력이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동북아의 군비경쟁,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제 제재체제 약화 등 복합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단지 양자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세력균형과 지정학적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평가된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1090085).

**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국지적 전쟁을 넘어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전쟁 이후 본격화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의 급속한 강화는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과 글로벌 세력균형에 중대한 지정학적 파급력을 유발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전통적인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 정찰위성 기술, 미사일, 방공체계, 사이버전 등 비대칭적 전략자산을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전쟁 지속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기존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러 관계는 냉전기 사회주의 진영의 전략적 연대에서 출발하였으나, 탈냉전기에는 관계가 소강 국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과 2024년 푸틴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2024 북러조약) 체결은 양국 관계가 군사·기술·정치 분야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제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실전 배치되고, 러시아의 위성 및 방공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고 있다는 정황은 이러한 협력이 실질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전쟁 전략 자산 교환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중심 질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안보 질서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축을 설정한다. 첫째, 북러 군사협력 강화 동향을 살펴본다. 둘째, 북러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및 지속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북러 협력의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추적한다. 넷째,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을 통한 구조적 해석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는 본 논문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북러 협력이라는 비전통적 군사협력 사례를 통해, 현대 전쟁의 다자화 및 지역-글로벌 안보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 현상이 국제질서 재편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제3의 전장에서 발생한 우회적 전략 개입이 어떻게 군사적 긴장과 동맹 구조를 변화시키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설명력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2022년 이후 북러 군사협력의 주요 양상, 즉 무기 거래, 기술 이전, 정상회담, 외교 메시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분석 자료는 정부 발표, 국제기구 보고서, 주요 싱크탱크 자료, 학술연구 및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며,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협력 구조의 내재적 의미와 지정학적 연동 효과를 도출한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특히 안보딜레마, 군비경쟁 이론, 구조적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보조적으로 전쟁 확산(diffusion of war)과 지정학적 연동성(geopolitical interlinkage)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복합적 함의를 정밀하게 조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그 전략적 성격과 협력의 강도 면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북러 관계와 관련한 연구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 먼저, 이상준·서동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심화와 군수물자 부족 상황이 북한과의 전략적 밀착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하며, 북러 협력의 복원은 단순한 전술적 접근이 아닌 상호 안보 이해의 재정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 황일도 또한 2023년 북러 정상 회담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적 지향점과 이에 따른 확장억제 구도의 도전을 조명하며, 북러 협력의 안보정치적 함의를 다각도로 해석하였다.²⁾ 홍민은 북

1) 이상준·서동주,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전략적 이해,” 『러시아연구』, 제34권, 제1호 (2024), pp. 203-235.

2) 황일도,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2023), pp. 85-105.

러 군사협력을 단순한 군수물자 교환이 아닌 지정학적 전략 구도 재편과 심리전·외교전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안보정세를 연결하는 복합적 연계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³⁾ 김태현은 북러 협력을 ‘북한군 재래식 전력 증강의 실질적 동인’으로 규정하면서, 군사동맹 조약의 실효성과 전쟁전략의 변화를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전략·군사·외교 분석을 포괄하는 입체적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⁴⁾ 해외의 경우, 클링너(Klingner)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수물자를 확보하고자 제재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협력이 단기적 무기 거래를 넘어 지정학적 연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⁵⁾ 뎀프시(Dempsey)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유도기술, 정찰위성 관련 고급 군사기술을 획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2023년 11월 발사된 ‘만리경-1호’의 성공은 이러한 기술 협력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⁶⁾ 이외에도 CSIS, Atlantic Council, Trend Micro 등의 기관에서도 북러 협력을 전략적 무기 거래, 기술 이전, 전시 동맹, 정보전 파트너십이라는 다차원적 협력 구조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북러 양자 관계 또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러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와 지속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 배경,⁸⁾ 서방의 제재 전략,⁹⁾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¹⁰⁾

3)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통일연구원, 2023).

4) 김태현,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26호 (2024), pp. 7-50.

5) Bruce Klingner, *The Russia-North Korea Military Pact Is a Big Problem* (Heritage Foundation, 2024).

6) Joseph Dempsey, *North Korea – A new eye in the sky?* (IISS, 2023).

7) Joseph Bermudez, Victor Cha and Jennifer Jun, “Dramatic Increase in DPRK-Russia Border Rail Traffic after Kim-Putin Summit,” *CSIS Beyond Parallel*, October 9, 2023; Olivia Yanchik, “Putin Confirms North Korean Troops Are Fighting for Russia Against Ukraine,” *Atlantic Council*, May 1, 2025; Feike Hacquebord and Stephen Hilt, “Russian Infrastructure Plays Crucial Role in North Korean Cybercrime Operations,” *Trend Micro*, April 23, 2025.

8) Elias Götz and Per Ekma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Context, Causes, and Consequence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71, No. 3 (2024), pp. 193-205; Cristian Nitoiu, “The path to Russia’s 2022 invasion of Ukraine: Moscow’s framing of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the West under Putin’s rule,”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1, No. 19 (2024); Barry Posen, “Putin’s Preventive War: The 2022 Invasion of Ukrain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9, No. 3 (2025), pp. 7-49.

9) Rosefielde Steven, “Russo-Ukrainian war: Limits of Western economic sanctions,” *Acta Oeconomica*, Vol. 74, No. 1 (2024), pp. 1-17; Nobuhiro Hosoe, “Russia following the invasion of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서방 싱크탱크와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수품(포탄, 로켓 등)이 전황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¹⁾ 소콜린(Sokolin), 디펜(Diepen) 등은 KN-23/25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러시아의 정찰위성·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북러 간 비대칭 전력 보완 구조의 실체화를 뒷받침하고 있다.¹²⁾ 케네디(Kennedy), 피체타(Picheta et al.) 등은 북한의 인력 제공, 사이버 전장 협력 등 비전통적 전쟁개입 양상을 강조하면서, 북러 협력이 복합적 대리전(Proxy War)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북한의 역할을 보조적 변수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북러 협력이 단순한 ‘군수 보급’ 이상의 전략적 파급력을 지닌다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와 동시에,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특히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 세력균형 개념은 국가 간 군사협력과 그로 인한 위협 인식 및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데 유효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여기서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방어적 행동을 공격적 의도로 오인하게 되는 상호 불신의 악순환 구조이고, 군비경쟁은 그 결과 발생하는 정량적·질적 군사력 확대 현상이다. 따라서 두 개념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개념적 분리’가 아니라 ‘분석 목적상 구별하여 어떤 구체적 현상을 설명했는가’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딜레마는 지정학적 신뢰 붕괴를, 군비경쟁은 물적 증강 효과를 설명하는 데

Ukraine,”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45, No. 2 (2023), pp. 305-319.

- 10) John Mearsheim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Ukraine Wa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 21 (2022), pp. 12-27; M. Dinca and A. M. Dinca, “The War in Ukraine - A Long Term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and Social Order*, Vol. 318, No. 1 (2024), pp. 318-327.
- 11) Joseph Bermudez, Victor Cha and Jennifer Jun, “Major Munitions Transfers from North Korea to Russia,” *CSIS Beyond Parallel*, February 28, 2024; Edward Howell, *North Korea and Russia’s dangerous partnership* (London: Chatham House, 2024).
- 12) Anton Sokolin, “North Korea set to send 150 ballistic missiles, more troops to Russia: Kyiv,” *NK News*, January 24, 2025. <https://www.nknews.org/2025/01/north-korea-set-to-send-150-ballistic-missiles-more-troops-to-russia-kyiv/> (검색일: 2025.1.10.); Vann Diepen,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38 North*, November 28, 2023. <https://www.38north.org/2023/11/modest-beginnings-north-korea-launches-its-first-reconnaissance-satellite/> (검색일: 2025.1.8).
- 13) Dana Kennedy, “North Korean elite Storm Corps reduced to cannon fodder at Russian ‘meat grinder’ front line: sources,” *New York Post*, November 9, 2024. <https://nypost.com/2024/11/09/us-news/north-korean-elite-storm-corps-reduced-to-cannon-fodder-sources/> (검색일: 2025.1.12); Rob Picheta, Victoria Butenko and Anna Chernova, “North Korea sending citizens to help Russian military fight Ukraine, Zelensky says,” *CNN*, October 14, 2024. <https://edition.cnn.com/2024/10/14/europe/north-korea-russia-ukraine-military-zelensky-intl/index.html> (검색일: 2025.1.19).

각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중복이 아닌 분석적 분화(analytical separation)의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비스(Jervis)는 안보딜레마를 통해 방어적 목적의 군사 조치도 타국에 의해 공격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을 설명하였으며,¹⁴⁾ 글레이저(Glaser)는 군비경쟁이 잘못된 위협 인식에서 비롯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⁵⁾ 왈츠(Waltz)와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국가들이 무정부적 국제체제 속에서 자구적으로 안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사력 강화와 동맹 재편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¹⁶⁾ 하지만 기존 이론적 연구들은 북러 협력이라는 비전통적 군사 네트워크가 제3의 전장(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치는 구조적 영향력을 다룬 사례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북러 관계 연구,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현실주의 이론을 종합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단지 양자 간 협력을 넘어 전쟁 지속력과 국제안보 질서 재편에 어떤 구조적 함의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동시대 안보 환경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국제정치학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현실주의(Realism)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채택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무정부적(anarchic)’인 상태로 규정하며,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생존과 안보를 보장받을 상위 권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추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가는 본질적으로 이기적 행위자이며, 상대 국가의 의도보다는 능력(capabilities)에 주목하여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¹⁷⁾

14) R.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1978), pp. 167-214.

15) C. Glas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rms Ra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1 (2000), pp. 251-276.

16)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1979);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이러한 현실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이다. 안보딜레마란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동맹을 체결하는 행위가 상대 국가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군비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의미한다.¹⁸⁾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상호 불신을 심화시키며, 갈등과 긴장의 상승을 초래한다. 중요한 것은, 당사국의 군사적 조치가 방어적 의도에 기반하더라도, 상대국이 이를 공격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와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인 군비경쟁(Arms Race) 역시 본 논문의 분석에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군비경쟁은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상대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은 통상 ‘자위적 의도 대 위협적 인식’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며, 어느 한 쪽의 군비 증강이 또 다른 쪽의 대응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균형(balance)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불균형과 불안을 초래하는 역설로 귀결된다.¹⁹⁾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북러 간 군사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진영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수물자 부족, 서방의 제재 강화, 국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였다.²⁰⁾ 이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방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군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은 북한에게도 외교적 고립 탈피와 군사기술 확보라는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며 상호 호혜적 구조를 형성하였다.²¹⁾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한국, 미국, 일본의 위협 인식을 자극하며,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공조, 무기 현대화와 같은 대응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파급력이 제3 지역으로 확산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7) Waltz(1979), op. cit.; Mearsheimer(2001), op. cit.

18) Jervis(1978), op. cit., pp. 169-172.

19) Glaser(2000), op. cit., pp. 262-264.

20) 이상준·서동주(2024), op. cit., pp. 215-219

21) 황일도(2023), op. cit., pp. 87-93.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안보딜레마 개념은 동북아·한반도 연구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온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넘어서는 안보딜레마의 변형 적용 또는 특수성(북러 협력의 ‘Proxy Security Dilemma’, 혹은 ‘Entangled Security Dilemma’)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북러 협력은 기존과 달리 ‘비국가 연합의 동시적 위협감각 확산’, 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촉발된 동북아 안보딜레마의 역수입’ 같은 새로운 연결 구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창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주의 이론적 틀은 북러 군사협력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국제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효한 설명력을 제공하며,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는 강력한 분석 도구로 기능한다.

Ⅲ. 북러 군사협력 및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 안보 질서

1. 북러 군사협력 강화 동향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군사 제재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기존의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 대신 반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중요한 전략적 협력 대상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무기와 탄약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중요한 선택지로 고려하였다.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한 소련제 탄약, 포탄, 미사일 등은 러시아군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이러한 점에서 양국 간 군사적 협력 기회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²²⁾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 중국, 이란 등과 같은 반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다극적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²³⁾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는 압박에 대응하는 중요한 외교적·군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가 제한되면서, 러시아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석유, 군사 장비, 원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양국 간 비공식적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을 통해 서방의 감시를 피하면서 군사 물자 및 전략적 물자를 조달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²⁴⁾ 또한, 러시아는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를 무역 차단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경로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우선, 군사기술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정찰위성, 미사일 기술, 사이버전 능력 등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이 이전되면서,²⁵⁾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²⁶⁾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인 석유·가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비공식적으로 수입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²⁸⁾ 또한, 북한 노동자들의

22) Abhishek Sharma, "Russia and North Korea Join Forces in the War Against Ukraine: Global Ramifications," *The Prospect Foundation*, December 2, 2024.

23) President of Russia,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02.07.2021 No. 400,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Kremlin*, 2021.

24) Dasl Yoon and Matthew Luxmoore, "Ukraine Says North Korean Role in Russia's War Is Growing,"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16, 2024. <https://www.wsj.com/world/asia/ukraine-says-north-korea-has-growing-role-in-war-2c28e17a> (검색일: 2025.1.4).

25) DW, "Russia supplied anti-air missiles to North Korea, Seoul says," November 22, 2024. <https://www.dw.com/en/russia-supplied-anti-air-missiles-to-north-korea-seoul-says/live-70854753> (검색일: 2025.2.2).

26) Robert Peters, "The Potential for Russia to Supercharg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Heritage Foundation*, No. 3856 (2024), pp. 8-13.

27) 러시아 보스토크니 항에서 북한의 여러 항구로 향하는 석유 수송이 추적된 바 있다. Mia Jankowicz, "Satellite images show Russia defying sanctions to give North Korea 1 million barrels of oil: report," *Business Insider*, November 22, 2024. <https://www.businessinsider.com/satellite-images-russia-shipped-north-korea-million-oil-barrels-report-2024-11> (검색일: 2025.2.3).

28) Stephen Blank and Mark Temnycky, "The Case for Stopping Russia Sanction-Busters," *Policy*

러시아 파견이 재개되면서, 이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²⁹⁾ 외교적으로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완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반서방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일 3각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러 협력 구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대하고,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을 살펴보면,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 이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군사동맹 가능성 등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탄약과 포탄 등의 재고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다.³¹⁾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탄약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소련제 122mm, 152mm 포탄과 방사포(MLRS) 탄약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를 러시아에 공급하였다.³²⁾ 또한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KN-23, KN-25 등의 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에 제공되기도 하였다.³³⁾

반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덕분이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기술을 이전했음을 시사한다.³⁴⁾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S-300 및 S-400 방공 시스템의

Commons, November 12, 2024.

29) Yun-hwan Chae, "Thousands of N.K. laborers sent to work in Russia in 2024: S. Korea's spy agency," *Yonhap News Agency*, February 9, 2025. <https://en.yna.co.kr/view/AEN20250209000700315> (검색일: 2025.2.5).

30) 북한은 2023년 캄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를 '아시아판 NATO 창설'로 규정하고, "북·중·러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Al Jazeera*, June 30, 2024).

31) 이 과정에서 쇼이구(Sergei Shoigu)는 국방장관 시절 1차례(2023년 7월 26일),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4차례(2024년 9월 13일, 2025년 3월 21일, 2025년 6월 4일/17일) 북한을 방문하여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Anton Sokolin and Joon Ha Park, "Russian security chief Shoigu arrives in North Korea for talks with Kim Jong Un," *NK News*, March 21, 2025. <https://www.nknews.org/2025/03/russian-security-chief-shoigu-arrives-in-north-korea-for-talks-with-kim-jong-un> (검색일: 2025.2.5).

32) Victor Cha, "A Threat Like No Other: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CSIS*, June 17, 2024.

33) Sokolin(January 24, 2025), op. cit.

34) Diepen(2023), op. cit.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⁵⁾ 더욱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Kinzhal, Avangard 등)을 이전받아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다.³⁶⁾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및 다탄두(MIRV)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MIRV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MIRV 기술을 제공할 경우, 북한의 ICBM 전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고급 유도 시스템 및 재진입 기술(RV Technology)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⁷⁾ 이러한 기술 지원 하에서 북한은 사거리 10,000km 이상의 ICBM, 예를 들어 화성-18형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전 배치 능력을 더욱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 가령, 북한은 2023년 11월 첫 정찰위성 ‘만리경-1’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⁸⁾ 북한은 과거에도 인공위성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과거 북한은 2012년 광명성-3호, 2016년 광명성-4호 등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나, 이들 위성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거나 제한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 ‘만리경-1’의 발사 성공은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³⁹⁾ 특히, 북한이 사용한

35) Reuters, “South Korea official says Russia provided anti-air missile to North Korea,” November 22, 2024. <https://www.reuters.com/world/south-korea-official-says-russia-provided-anti-air-missile-north-korea-yonhap-2024-11-22/> (검색일: 2025.2.6).

36)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Al Jazeera, “North Korea says test of new hypersonic missile successful,” January 7,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7/north-korea-says-test-of-new-hypersonic-missile-successful> (검색일: 2025.2.6).

37) 지난 몇 년간 북한이 공개해온 액체연료 ICBM과는 달리, 고체연료 ICBM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수평 엔진 시험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했다. 이 시험은 화성-18이 실전용 기만용 캔니스터(countermeasure canister)와 함께 상당한 탄두 중량을 대륙간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고급 기술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러시아 정부와 그 과학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Theodore Postol, “The Transfer of a Russian ICBM to North Korea?” CSIS, August 17, 2023. <https://beyondparallel.csis.org/the-transfer-of-a-russian-icbm-to-north-korea/> (검색일: 2025.2.7).

38) 러시아의 지원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프로그램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으며, 특히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했다. Philippe Mesmer and Benoît Vitkine, “North Korea’s latest satellites rely on Russian technical assistance, experts say,” *Le Monde*, May 29, 2024.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4/05/29/north-korea-s-latest-satellites-rely-on-russian-technical-assistance-experts-say_6673068_4.html (검색일: 2025.2.9).

‘천리마-1’ 로켓은 러시아의 소유스(Soyuz) 로켓 기술과 유사한 점이 많아 러시아의 기술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⁴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필수적인 위성 제어 기술과 궤도 유지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았을 것으로 평가했으며,⁴¹⁾ 실제로 2023년 9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⁴²⁾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우주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북러 간 첨단기술 교류로 확장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강점을 지닌 사이버전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군사 인공지능(AI) 및 전자전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⁴³⁾ 북한은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과 같은 강력한 해킹 조직을 운영하며 사이버전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⁴⁴⁾ 최근 라자루스 그룹이 러시아 해커들과 협력하여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⁴⁵⁾ 한편, 러시아는 이미 사이버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및 서방 국가를 상대로 한 정보전 및 해킹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⁴⁶⁾ 실제로,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의 사이버

39) 분석가들은 러시아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이전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전에 실패한 발사에서 얻은 원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켓 엔진의 연소 불안정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엔지니어들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uters, “What to know about North Korea’s spy satellite launch,” November 22, 202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at-we-know-about-north-koreas-new-satellite-claims-russian-aid-2023-11-22> (검색일: 2025.2.10).

40) Reuters(November 22, 2023), op. cit.

41) Hyonhee Shin, “North Korea received Russian aid for satellite launch -South Korea lawmakers,” Reuters, November 23, 202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north-korea-received-russian-aid-satellite-launch-south-korea-lawmakers-2023-11-23/> (검색일: 2025.2.23).

42) Tong-Hyung Kim and Dasha Litvinova, “North Korea’s Kim arrives in eastern Russian city for expected visit to fighter jet plant,” AP News, September 15, 2023.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russia-kim-putin-missile-0d70f5190df1088ebe53e8ca19f8e9c9> (검색일: 2025.3.15); Ivana Saric, “Russia may share advanced satellite tech with North Korea, Blinken warns,” Axios, January 6, 2025.

43) Chris Bronk, “Collaborating Pariahs: Does the Ukraine War Cement an Adversarial Cyber-Information Bloc?” *ACIG*, Vol. 3, No. 1 (2024), pp. 58-77.

44) Bronk(2024), op. cit., p. 63.

45) Justin McCurry, “North Korea behind \$1.5bn hack of crypto exchange ByBit, says FBI,” *The Guardian*, February 27,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feb/27/north-korea-bybit-crypto-exchange-hack-fbi> (검색일: 2025.3.20).

46) Abhishek Sharma, “Cyber Allies: North Korea and Russia’s cyber partnership in the post-treaty era,” *Daily NK*, July 17, 2024. <https://www.dailynk.com/english/cyber-allies-north-korea-and-russias-cyber-partnership-in-the-post-treaty-era/> (검색일: 2025.3.21). 한편 ‘2024 북러조약’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약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 방위, 과학기술 협력(인공지능 포함), 그리고 국제 사이버 안보 규범 수립을 위한 공동 노력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Sunha Bae, “Deterrence Under Pressure: Sustaining U.S.-ROK Cyber Cooperation Against

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금융 해킹 및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했다는 정보가 존재하며,⁴⁷⁾ 이는 양국이 사이버 안보 및 해킹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⁴⁸⁾ 또한 군수 지원을 위한 노동자 파견 등의 방식으로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⁴⁹⁾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23년 9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군사협력 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24년 6월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2024 북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과 양국 간의 군사적 결속이 더욱 강화되었다.⁵⁰⁾

[표 1] 1961년과 2024년 북한-러시아 협정문

항목	1961년 협정	2024년 협정
상호협약	제3조: 계약 당사자는 양국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를 함께 협의한다.	제3조: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직접적인 무력침략의 위협이 조성될 경우, 쌍방은 즉시 양자협의 경로를 가동한다...
군사개입	제1조: 계약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 타방은 즉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하나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유엔 헌장 제51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따라 군사적 및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평시군사협력	관련 조항 없음	제7조: 쌍방은 전쟁 방지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출처: 저자 작성

North Korea,” CSIS, April 1, 2025. <https://www.csis.org/analysis/deterrence-under-pressure-sustaining-us-rok-cyber-cooperation-against-north-korea> (검색일: 2025.3.21).

47) Chainalysis Team, “Russian and North Korean Cyberattack Infrastructure Converge: New Hacking Data Raises National Security Concerns,” *Chainalysis*, September 14, 2023.

48) Yanchik(May 1, 2025), op. cit.

49) Kennedy(November 9, 2024), op. cit.; Picheta et al.(October 14, 2024), op. cit.

50) Du Hyeogn Cha, “Implications of the DPRK-Russia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san Issue Brief*, No. 2024-19 (October 8, 2024).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단순히 양국 간의 전통적인 무기 거래나 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전개 양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 협력은 전쟁의 장기화와 복합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한 양자 간 무력 충돌이 아니라 다수 국가가 개입하는 복합적·다자적 대리전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북러 군사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반서방 진영의 결속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였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말았다. 동시에 북한은 소련제 탄약 및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러시아에 공급하였으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정찰위성,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양국 간 비대칭 전력의 상호보완이 이뤄졌다. 또한, 군사 및 전략 물자의 비공식 거래, 북한 노동자의 불법적 파견,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 및 금융 해킹 공조 등은 전통적 제재 틀을 우회하는 새로운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안보 거버넌스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이처럼 북러 간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지적 성격을 탈피하게 만들고, 지정학적, 군사기술적, 외교·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복합적 갈등 양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대리전의 확장적 파장 속에서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가 격화될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에 심대한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북러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및 지속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북러 군사협력은 단순한 무기 공급을 넘어, 군수 물자 지원, 인적 자원의 파견, 간접적인 정치·외교적 연계 구축, 그리고 기술적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와 지속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적 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이 직접 참전하여 전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⁵¹⁾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1) 양욱, 『쿠르스크에서 확산되는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군』 (아산정책연구원, 2025).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⁵²⁾ 북러 군사협력은 이제 전술적 연대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⁵³⁾ 이러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원에서 그 영향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전쟁 지속 수단으로서의 실질적 기여이다. 3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다양한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다량 공급함으로써, 러시아 전선에서의 보병 전투 능력 유지에 중요한 후방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미 국방부와 다수의 서방 싱크탱크는 이러한 무기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여 북극해를 통해 또는 철도 운송망을 통해 러시아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⁴⁾ 더욱이 2025년 4월, 러시아 정부는 쿠르스크 전선 방면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군과 함께 직접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⁵⁵⁾ 이는 북한이 단순한 군수 후방 지원국을 넘어서, 전면적 전투 파트너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실제로 2025년 3월부터 쿠르스크 방면에서 확인된 북한군 병력은 약 3,000명 규모로 추정되며, 이들은 참호진, 야간 소탕 작전, 탄약 이송 및 후방 경비 등 다기능 작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2025년 4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북한군의 기여를 “전선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제적 지원 사례”라고 평가하였다.⁵⁶⁾ 이와 같은 병력 제공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제3국 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러 군사협력은 국제사회의 제재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 기존의 규범적 질서를 훼손하는 비정규전 양상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통적 군사동맹이 제공할

52) Justin McCurry and Pjotr Sauer, “Putin and Kim confirm for first time North Koreans fought for Russia in Ukraine war,” *The Guardian*, April 28,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28/north-korea-troops-fighting-for-russia-ukraine-confirmed-kim-jong-un> (검색일: 2025.3.6).

53) 김성배·김종원·김태주·양갑용·최용환, “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INSS 전략보고』, 2025년 2월 28일; Al Jazeera, “North Korea sending teams to Russia’s Kursk to aid war-hit area’s recovery,” Jun 17,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6/17/north-korea-sending-teams-to-russias-kursk-to-aid-war-hit-areas-recovery> (검색일: 2025.6.17).

54) Joseph Bermudez, Victor Cha and Jennifer Jun, “Activity at Najin Points to Continued DPRK-Russia Arms Transfers,” *CSIS*, December 8, 2023. <https://beyondparallel.csis.org/activity-at-najin-points-to-continued-dprk-russia-arms-transfers/> (검색일: 2025.3.7).

55) Анастасия Алимпиева, “Пут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Ким Чен Ына за помощ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Lenta*, 28 апреля 2025 г. <https://lenta.ru/news/2025/04/28/blagodarnost/> (검색일: 2025.3.7).

56) David Brennan, “Putin says North Korean ‘friends’ helped Russia push Ukraine out of Kursk,” *ABC News*, April 28, 2025.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putin-north-korean-friends-helped-russia-push-ukraine/story?id=121229750> (검색일: 2025.3.7).

수 없는 병참·군수 지원을 북한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비공식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협력자로 전장에 관여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제재 회피형 무기 공급망의 제도화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국 내 무기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포탄, 단거리 미사일, 보병 화기 등을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 운송 및 철도망을 통한 은폐 경로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⁵⁷⁾ ② 군사적 비공식 개입을 통한 전쟁의 비정규화다. 북한은 러시아 측 요청에 따라 전투 병력을 파병하였고, 2025년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참전은 그 상징적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시적 조약에 의한 연합군 구성 없이 제3국 병력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사례이며, 현대 국제분쟁에서 비국가형·비정규형 참전 구조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이는 단순한 ‘도움’이 아닌 정치적으로 승인된 ‘집단적 전쟁 개입’ 행위로 재정의되었다.⁵⁸⁾ ③ 이러한 협력 구조는 국제 규범의 해체와 전쟁 질서의 비공식화를 야기하고 있다. 유엔 체제 아래에서 제재 감시 및 분쟁 개입의 룰 기반 질서는 북러 협력의 지속과 확산 앞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균열로 직결된다. 아울러 전쟁 수행 방식이 공식-비공식, 군인-민병대, 국방부-정찰기관 등 복합 혼성형 양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비정규전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⁵⁹⁾ 결론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은 단순한 전술적 편의성을 넘어서, 제재 회피, 비정규전 확대, 규범 약화를 구조화시키는 장기적 위험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분쟁의 법적 판단 기준 및 국제제도 자체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셋째, 대리전 구조의 확산과 전장 다변화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

57) Justin McCurry, "From ammunition to ballistic missiles: how North Korea arms Russia in the Ukraine war," *The Guardian*, April 25,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25/how-north-korea-arms-russia-in-ukraine-war> (검색일: 2025.3.8).

58) Dasl Yoon, "Russia and North Korea Turn Their War Alliance Into a Propaganda Tool," *The Wall Street Journal*, May 11, 2025. <https://www.wsj.com/world/asia/russia-and-north-korea-turn-their-war-alliance-into-a-propaganda-tool-2a4c9a19> (검색일: 2025.3.9).

59) Choong-Koo Lee, "Putting the Screws on the Partner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ar on the Rocks*, April 1, 2025.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행보는 이러한 원칙의 변화를 시사한다. 특히,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북한군 참전과 대규모 무기·물자 지원은 단순한 외교적 지지나 후방 지원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구조적 개입으로 평가된다.⁶⁰⁾ 2024년 말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약 15,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전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군수 부족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⁶¹⁾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고전적 대리전 모델을 확장·재구성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우회적 개입을 통한 전략적 영향력 투사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직접적인 전쟁 수행 없이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²⁾ 이는 전통적인 대리전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리전 양상으로, 국제안보 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입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통한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 기술을 시험하고, 실전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⁶³⁾

넷째, 러시아의 전략 자산 보완과 방어 능력 강화이다. 북한의 군수 및 전투 지원은 러시아의 전략적 전력 공백을 보완하고, 특히 방어 중심의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는 서방의 고속탄약 소진 전략(shell hunger)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탄약 및 장비의 보급선 유지가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에 최대 600만 발에 달하는 포탄과 수만 개의 로켓탄 및 미사일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포병 운용 지속성과 공세 유지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였다.⁶⁴⁾ 더불어, 북한의 군수 지원은

60) Jake Rinaldi, "North Korea in Ukraine: Analyzing Authoritarian Cooperation," *SSI*, March 18, 2025.

61) NPR, "North Korea confirms it sent troops to Russia to support its war against Ukraine," April 28, 2025. <https://www.npr.org/2025/04/28/nx-s1-5379436/north-korea-russia-ukraine-troops-putin-kim> (검색일: 2025.3.10).

62) Jeffrey Hornung, "Ukraine Is Now a Proxy War for Asian Powers," *RAND Corporation*, Nov 21, 2024.

63) Yoon(May 11, 2025), Op. cit.

러시아의 방공체계 유지와 후방 작전 효율성 제고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물리적 탄약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 부속품, 야전 장비, 식량 등 군수품을 공급하면서 러시아군의 후방 지원 능력 전반을 보완하였다. 나아가 북한군 병력 일부가 러시아군의 보조 방공 임무 및 전장 경비 임무에 투입됨으로써, 러시아군은 전략 자산을 보다 우선적인 작전 지역에 집중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⁶⁵⁾ 특히, 2025년 상반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국면에서는 크림반도 및 벨고로드 일대의 방공 전력 운용이 전력적으로 중요해졌으며, 북러 협력은 러시아의 전선 방어 안정성과 작전 지속성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였다.⁶⁶⁾ 동시에, 북한의 대가성 지원으로 러시아는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도 포착되며, 이는 북러 간 기술 및 군사자산 교환의 쌍방향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⁶⁷⁾ 요컨대, 북러 협력은 단순한 전투력 보조를 넘어서, 전략 자산의 배치 효율을 재조정하고 작전 지속성의 핵심 자원을 보완함으로써 러시아군의 전쟁수행 능력 전반에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현상은 안보딜레마 개념의 변형 적용을 가능케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단순한 국가 간 위협 인식의 확대를 넘어 ‘Proxy Security Dilemma’, 즉 우크라이나 전장을 둘러싼 제3국(북한)의 개입이 주변 국가들의 안보 인식을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 간접적 위협 확산을 유발하는 딜레마 구조를 제시한다. 더불어 북러 협력은 ‘Entangled Security Dilemma’, 즉 유럽 전장에서 촉발된 군사협력 구조가 동북아 안보 구도에 역류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기존의 안보딜레마 논의와는 구별되는 복합 연계형 안보 위협 구조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북러 협력의 강화는 한미일 군사협력 구조의 고도화와 NATO

64) Yevheniia Martyniuk, “North Korea has supplied half of Russia’s ammunition in Ukraine—that’s 6 million shells,” *Reuters*, April 15, 2025. <https://euromaidanpress.com/2025/04/15/reuters-north-korea-has-supplied-half-of-russias-ammunition-thats-6-million-shells/> (검색일: 2025.3.12).

65) Tianran Xu, “North Korea’s Lethal Aid to Russia: Current State and Outlook,” *38 North*, February 14, 2025. <https://www.38north.org/2025/02/north-koreas-lethal-aid-to-russia-current-state-and-outlook/> (검색일: 2025.3.13).

66) Thomas Newdick, “North Korea Getting New Air Defenses In Return For Supporting Russia In Ukraine: Official,” *The War Zone*, Nov 22, 2024.

67) Hyun-Jin Kim and Tong-Hyung Kim, “Russia supplied air defense missiles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its troops, South Korea says,” *AP News*, November 22, 2024.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troops-ukraine-russia-missile-1efc0e29d5d6225fb85891ef6c822e4c> (검색일: 2025.3.13).

식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능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안보 블록화를 가속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일 전쟁이 아닌, 지정학적으로 연결된 복수의 전쟁 구조, 즉 유럽과 동아시아의 전략 연계 전쟁(theater linkage)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러 군사협력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초월하는 규범 파괴적 전략 연계의 전형이며, ‘국가 간 직접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후(戰後) 질서 개편’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식적인 병력 파병 인정은 국제적 안보 구도 내에서 북러 협력이 사실상 집단안보 체제의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전쟁의 전개 양상과 지속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연계는 새로운 유형의 분산적 전쟁 구조가 국제정치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3. 북러 협력의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영향 분석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단지 양국의 양자관계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적 반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비공식 거래를 통해 서방 제재망을 우회하는 전략적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는 단지 군수 교환이 아니라, 서방의 경제·기술 제재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교란 행위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체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 체계 전반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⁶⁸⁾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다. 그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이 제재들은 북한의 무기 수출입, 에너지 자원 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기술 이전, 군수 물자의 제공, 금융 지원, 제3국 기업과의 거래까지 금지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68) Howell(2024), op. cit., p. 7.

군사 능력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층적 압박 체제를 구축해왔다.⁶⁹⁾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제재체제는 점차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정찰위성 발사, ICBM 시험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계속해서 상정되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제재 시스템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 또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재 이행을 위한 감시 및 협력에도 실질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⁷⁰⁾ 이러한 상황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제재위원회의 기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회원국들의 위반 여부를 조사·보고하는 중요한 기구지만, 2023년부터 러시아는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발표를 차단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⁷¹⁾ 이와 같은 상황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제재체제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나 동맹 체계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가 메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제재체제는 점차 균형성과 합의 기반을 상실하고 있으며, 제재의 집행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북러 협력은 러시아에게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효과를 갖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외교적 고립 조치에 직면하였다. 국제 금융망(SWIFT) 퇴출,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외교적 단절 등의 조치는 러시아의 글로벌 정치·경제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군사 및 전략적 협력은 러시아에게 단순한 실리적 협력을 넘어서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다. 우선, 러시아는 북한과의 연대를

69) 이 제재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북한 외국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2397호 결의는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70) 2024년 3월,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투표를 기권하여 패널이 만료되었다(United Nations, March 28, 2024).

71) Kelsey Davenport, "Russia Ends North Korean Sanctions Panel," *Arms Control Association*, 2024.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균열이 존재하며, 자신은 완전히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시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⁷²⁾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후, 러시아가 “세계의 절반과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대안적 국제질서 구축’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려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다.⁷³⁾ 북한은 러시아가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상징적 파트너로 기능하며, 특히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일부 비동맹국과의 외교에서 서방의 대러 서사에 대한 균형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2023년 이후 유엔에서 대북 제재 연장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표결 불참을 통해 북한을 옹호하였고, 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적 지원이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치적 ‘보여주기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히 실질적 안보이익을 넘어서, 러시아가 유엔 체제 내에서 아직도 ‘전략적 선택권을 가진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가 ‘국제적 고립 타파’의 상징적 파트너로 북한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군사적 실익 때문이 아니라, 보다 깊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결부되어 있다.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제재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국가 중 하나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개발·무기수출·노동자 파견 등 대부분의 대외경제활동이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와의 공식적 군사협력은 곧 러시아가 ‘국제규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과 서방 주도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명시적 메시지로 작용한다. 즉, 이는 단순한 ‘고립되지 않음’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는 서방의 규범에 속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입장의 천명이다. 둘째,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비서방 권위주의 체제이며, 각각 서방의 지배적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두 정권 간 군사협력은 실질적 이익을 넘어, 비서방 권위주의 연대의 정당성을 재현하는 ‘레짐-상징적 결속’의 도식으로 기능한다.

72) 물론 러시아는 북한이 아니라도 중국, 인도를 비롯한 BRICS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러시아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필요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73) Sharma(2024), op. cit.

다시 말해, 북한은 러시아가 중국·인도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 국가들’과 달리, 무조건적 연대를 시현할 수 있는 확실한 반서방 파트너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이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도 구축하고 있다. 즉, “제재를 받더라도 자주적으로 생존하고,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대안 질서 서사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현실화함으로써, 포스트 서구질서(post-Western order)의 전위로서 자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단순히 실익 중심의 고립 해소 전략이 아니라, 서방 중심 질서에 대한 체제적 도전, 권위주의 간 정치결속, 대안적 외교서사 확산이라는 복합적 목적을 지닌 외교·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북러 협력은 러시아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서방의 규칙에서 이탈해도 여전히 국제정치의 독자적 행위자’임을 보여주는 능동적 시위라고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사실을 비공식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정상회담과 협정 체결 등 공식 외교 일정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국내외에 정치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2024 북러조약’ 체결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⁷⁴⁾ 이 조약은 국제사회에 러시아가 여전히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교적 힘을 가진 국가임을 시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외교적 피로감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작용한다. 결국,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고립된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은 ‘고립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 논리에서 말하는 외교적 세력 균형 행위(diplomatic balancing)의 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외교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러 협력은 또한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반발과 대응을 촉진시켰다. 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으며,⁷⁵⁾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협력 등 군사협력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로 반응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은

74) Cha(October 8, 2024), op. cit.

75)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Briefing on North Korea’s Arms Transfers to Russia,” October 20, 2023.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에까지 지정학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⁷⁶⁾ 이러한 흐름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보 구도를 변화시키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세 나라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군사정보 공유 확대,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연합훈련 증가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더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⁷⁷⁾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될수록 한미일 군사협력도 이에 맞춰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진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중·러 간의 패권 경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다면, 동북아 지역은 강대국들의 주요 전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⁷⁸⁾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이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안보 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제질서의 대전환 상황에서 북러 협력이 심화되고, 중국이 이에 동참하여 3국 간 협력을 공식화하게 된다면, 동북아 안보 질서는 새로운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3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⁷⁹⁾ 이처럼 북러 군사협력은 단지 양국 간의 전략적 제휴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경제·외교·지역안보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⁸⁰⁾ 이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전쟁의 확산’ 또는 ‘지정

76) 황성우, “동북아 新안보 지형의 통시적 해석,” 『슬라브연구』, 제40권, 제1호 (2024), pp. 37-66.

77) Victor Cha, Christopher Johnstone, Ellen Kim and Nicholas Szechenyi, “The Camp David U.S.-Japan-Korea Trilateral Summit: An Exchange among CSIS Japan and Korea Chairs,” CSIS, August 23, 2023.

78)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미국을 ‘적대적인’ 패권국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orth Korea, 2024).

79) Bruce Klingner, “China-Russia-North Korea Solidarity Poses Risk to the U.S. and Its Allies,” *Heritage Foundation*, No. 3823 (2024), pp. 1-18; T. Hwang, “2024 Two Sessions: Direction of China’s Foreign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KINU*, CO 24-22 (2024); Christopher Chivvis and Jack Keating, “How Evil? Deconstructing the Russia-China-Iran-North Korea Axis,” *Survival*, Vol. 66, No. 6 (2024), pp. 51-66.

80) B. Most and H. Starr, “Diffusion, Reinforcement, Geopolitics, and the Spread of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No. 4 (1980), pp. 932-946.

학적 연동성'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며, 향후 북러 협력의 향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세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과 글로벌 질서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해석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는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구조는 불신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부정 부적 국제체제에서 자주 발생하며, 군비경쟁, 동맹 강화, 지역안보 위협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⁸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탄약과 무기 등의 군수물자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 지속 역량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국의 국제 고립을 타개하고, 군사기술 확보 및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은 각자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로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된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기술 협력 가능성을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확장억제 강화, 3자 안보협력 체계 강화, 미사일 방어 역량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대응은 북한과 러시아에게 다시금 외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추가적인 군사협력 강화 혹은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은 방어적 의도로 시작되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격적 신호로 해석되어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상호 위협 인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 즉 안보딜레마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⁸²⁾ 이 구조는 협력 그 자체보다도, 그 협력에 대한 지각(perception)과 정치적 해석이 어떻게 군사적 현실로 전이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주의의 핵심 논리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효한 사례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위협으로 인식한 한국,

81) Waltz(1979), op. cit., pp. 105-123.

82) Glaser(1997), op. cit., pp. 179-183.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군사적 대응도 가속화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포탄과 로켓, 단거리 미사일 등 실질적 전투 수단을 공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위성 기술, 재래식 무기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⁸³⁾ 이는 단지 양국 간의 전략적 교환을 넘어, 동북아 안보 균형 자체를 흔드는 질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일본,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 및 확장억제 강화라는 전략적 대응을 촉진시켰다. 예컨대, 한국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방비를 증액하였으며, 일본 역시 평화헌법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여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을 보유하겠다는 안보 전략을 공식화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지역 안보 불안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체계 구축,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일본 전개 확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⁸⁴⁾ 이처럼 북러 협력 심화는 동북아 내 주요 국가들이 상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자국의 억지 및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연쇄 반응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군비경쟁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한 국가의 자위적 조치가 타국의 위협 인식을 자극하고, 그 대응이 다시 원래 국가의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 불신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것이다.⁸⁵⁾ 군비경쟁은 단기적으로는 억지력 강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보 불안의 심화와 오인의 가능성 증가, 지역 충돌 위협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북러 협력이 단순한 전술 차원을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로 심화될 경우, 한미일은 대응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이다. 결국, 북러 협력은 단지 양자 간 군사거래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촉매제이자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내 전쟁이라는 국지적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지정학적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 동북아시아까지 파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는 전쟁의 지리적 확산이라기보다, 전략적 연동성(strategic interlinkage)을 통해 안보 위기의

83) 황일도(2023), op. cit., p. 92.

84) 아산정책연구원, 『북러 협력 이후 동북아 군사력 증강 동향 분석』, 이슈브리프 제2024-15호 (2024).

85) Jervis(1978), op. cit.; Glaser(1997), op. cit. 참조

범위를 확장시키는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3장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전쟁의 확산 또는 지정학적 연동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선택했고, 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적 기술 확보와 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안보 인식을 자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유럽의 위기’가 동북아 안보딜레마의 불씨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북러 협력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한미일 3국은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동북아 배치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대러·대북 군사적 압박 체계를 강화하였다.⁸⁶⁾ 또한 일본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NAT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이는 유럽 안보 위기가 단지 NATO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비서방 블록’에 대응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였다.⁸⁷⁾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는 단순히 ‘전쟁이 퍼진다’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위협 인식과 동맹 구조, 전략 자원의 배분을 통해 위기 관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러 협력은 바로 이러한 연동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무게 중심이 유럽을 넘어 동북아까지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지정학적 연동성을 통해 유럽 전장의 위기가 동북아 안보의 군사적 긴장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이 구조는 냉전 시기의 양극체제와는 달리, 동시다발적인 지역 위협과 다극화된 세력 구조가 맞물리며 안보 연쇄반응(security spillover)을 초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북러 협력은 단지 지역 간 협력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적 전선이 확장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주의 이론은 북러 협력의 배경과 확산,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을 구조적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유효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특히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 개념은 현 사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높은 예측력과 설명력을 지닌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볼 때,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방향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구조 재편과 글로

86) 황성우,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슬라브학보』, 제38권, 제4호 (2023), p. 20.

87) Cha(June 17, 2024), op. cit.

별 세력균형에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전략 조정이 국제사회에 요구되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급속도로 심화된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및 국제안보 구조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였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포탄, 미사일, 로켓 등 대량의 재래식 무기 공급은 러시아의 탄약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하며 전장 지속 능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략적 지속 가능성 확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둘째, 이 협력은 서방 제재체계를 우회하는 비공식적 전략물자 공급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국제질서가 규정한 제재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북한은 이를 통해 외화 수입과 기술 교환, 정치적 존재감 확대라는 복합적 이익을 추구하며,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에 ‘균열’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셋째, 외교·전략적 차원에서 북러 협력은 대미·대서방 견제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 발신 도구로 작동하였다. 특히 2023-2024년 정상회담과 군사협력 협정 체결 등은 국제사회에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서방 네트워크 구축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협력이 유럽 지역의 전쟁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북아 안보 지형과 직접 연결시키는 지정학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미일 3국 안보전략 고도화, 미국 전략자산 확대 배치, 일본의 반격 능력 공식화 등 일련의 군사적 반응을 자극하였고, 이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구조를 동북아시아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성과 국제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촉매로 작동하였으며, 이는 현대 국제질서가 지역 간 연결과 상호작용 속에서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북러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와 국제안보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현실주의 이론, 특히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 이론

을 중심으로 설명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적용을 통해 밝혀진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북러 협력이 단순한 양자 간의 실리적 거래가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안보 균형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안보딜레마의 작동 메커니즘은 북러 간 협력이 자위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더라도, 주변국(한국, 미국, 일본)에게는 공격적 신호로 인식되어 상호 군사력 증강과 대응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강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위협 인식의 구조적 속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군비경쟁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러 협력은 한미일 3국의 안보 전략 고도화, 미국의 전략자산 확대 배치, 일본의 반격 능력 공식화 등 일련의 군사적 반응을 자극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재조정과 비가시적 군사경쟁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이는 글레이저의 인식 기반 군비경쟁 이론과 미어사이머의 공격적 세력균형 전략이 실제 사례에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론적 개념들이 현장의 실제 사례와 긴밀하게 호응하며, 국가 간 상호 인식의 비대칭성과 반응의 연쇄성을 설명해 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이론은 본 연구 주제에 대해 매우 유효한 분석틀로 기능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 현실주의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측면도 갖는다. 기존의 안보딜레마 논의는 보통 상호 군사력 증강에 따른 양자 간의 긴장 고조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러 협력 사례에서는 이 협력이 제3국의 전쟁 지속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역 안보지형의 구조적 재편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보다 복합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는 현실주의 이론이 갖는 설명력의 확장 가능성과, 복합적 지정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융합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현실주의는 북러 협력이라는 비전통적 군사협력 사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설명력을 발휘하며,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구조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러 군사협력은 기존 유엔 안보리 중심의 대북 제재체계가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엔은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중장비·무기 수출입 금지, 기술 이전 제한, 해상 차단 조치, 금융 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고 있고, 감시와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2023년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포탄·미사일 실물 거래, 해상 운송·철도 운송 등 제3국 회피 경로를 통한 무기 수송, 그리고 북한 측의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추정되는 정찰위성 기술, 잠수함 설계 기술,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의 교환 사례들은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감시망을 우회한 전략적 협력의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결의 연장 실패, 제재위원회의 활동 제약, 공동조사 보고서 채택 불발 등의 결과를 겪으며 실질적 대응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불어, 유엔 회원국 다수는 자국 내 법령 체계 부족, 제재 이행 역량 부족,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제재 이행률이 매우 낮고, 보고 체계 또한 부실한 상황이다. 특히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깃발 위장(flag of convenience), 암호화폐·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등은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탐지·차단이 어려운 구조다. 북러 협력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로, 단순한 제재 회피가 아니라 국제 규범 자체에 대한 체계적 도전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 감시 체계 강화와 기술적 차단 수단의 동원, 그리고 다자 차원의 ‘행위자 책임 체계(accountability mechanism)’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기업 및 개인 명단 지정 등의 후속 조치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엔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견국 중심의 지역 차원 감시 기구 설립이나, 민간 감시 네트워크의 공공 협력 체계 편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급격히 양극화시켰다. 한미일 3국은 북러 협력의 군사적 함의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상응하여 북중러 간 정치·외교적 연대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구도는 ‘신냉전형 대결구도’의 고착화 가능성을 높였으며, 비군사적 대화 채널의 단절, 의도 오인의 위험 증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구조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계연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정학적 대립구조를 완화하고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된 다자 안보 협력 플랫폼’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6자회담 체제를 응용하되, 협상의 주제를 비핵화에서 ‘지역 안보투명성과 상호

불가침성'으로 확장하고, 참여 국가를 유연하게 조정(6+α)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대화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한·미·일·북·중·러를 기본 구성으로 하되, 필요시 EU, 아세안 주요국, 중립국 등 다자적 중재국 또는 조정자 그룹을 포함함으로써 상호 비방과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는 다자적 공론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투명성 확보와 위기 완화 채널 형성, 중장기적으로는 군비통제에 대한 지역별 신뢰 구축 조치(CBMs)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가 단순한 세력균형 구조를 넘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규범적 질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중견국(middle power)이자 지정학적 중심국가로서, 이와 같은 다자적 대화 구도를 제안하고 조정하는 외교적 중재자 또는 가교국가(bridging state)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결 구도를 완화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유지하는 균형외교 전략의 현실적 구현이기도 하다.

셋째, 북러 군사협력의 강화, 미·중 전략경쟁의 고착화, 북중러 3각 연대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병렬 강화는 동북아시아를 점점 더 양자택일적 대결 구도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은 전략적 압박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외부 블록 논리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은 정책의 유연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위기 완화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적 관여를 통해 지역 갈등의 고조를 완충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적극적 균형외교(active balancing diplomacy)'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다. 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되, 러시아·중국·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채널은 전면 차단이 아닌 조건적 관여 방식(conditional engagement)으로 유지하며, 국익 중심의 다층 외교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북러 협력으로 인해 촉발된 군사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군사력 강화 중심의 단일 대응 전략을 넘어서 외교·경제·기술 다각적 대응 능력을 갖춘

종합 안보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③ 한국은 ASEAN, EU, 호주, 캐나다 등 유사 입장을 지닌 중견국 그룹과의 전략 대화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미·중·러 중심의 강대국 패권 경쟁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연대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 전략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도 비강대국이 구조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구조 조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 외교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정학적 레버리지 확대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균형외교는 동북아의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 중재외교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 정체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본 논문이 주로 북러 관계와 서방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계산과 역할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러 관계의 진전에 일정한 조율자 또는 방관자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중국-러시아 3자 구조가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군사기술·우주기술의 실제 이전 수준과 그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비대칭 기술 협력, 인적 교류, 공동 개발 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미시적 자료 수집과 정량적 분석이 향후 학계와 정책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배 · 김종원 · 김태주 · 양갑용 · 최용환. “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INSS 전략보고』, 2025월 2월 28일.
- 김태현.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26호. 2024.
- 아산정책연구원. 『북러 협력 이후 동북아 군사력 증강 동향 분석』. 이슈브리프 제2024-15호. 2024.
- 양육. 『쿠르스크에서 학살되는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군』. 아산정책연구원, 2025.
- 이상준 · 서동주.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전략적 이해.” 『러시아연구』, 제34권, 제1호. 2024.
- _____.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슬라브학보』, 제38권, 제4호. 2023.
- 황성우. “동북아 新안보 지형의 통시적 해석.” 『슬라브연구』, 제40권, 제1호. 2024.
- 황일도.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2023.
-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통일연구원, 2023.
- Al Jazeera. “North Korea says US, South Korea and Japan developing ‘Asian NATO’.” June 30,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6/30/north-korea-says-us-south-korea-and-japan-developing-asian-nato> (검색일: 2025.1.5).
- _____. “North Korea says test of new hypersonic missile successful.” January 7,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7/north-korea-says-test-of-new-hypersonic-missile-successful> (검색일: 2025.2.6.).
- _____. “North Korea sending teams to Russia’s Kursk to aid war-hit area’s recovery,” Jun 17,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6/17/north-korea-sending-teams-to-russias-kursk-to-aid-war-hit-areas-recovery> (검색일: 2025.6.17).
- Bae, Sunha. “Deterrence Under Pressure: Sustaining U.S.–ROK Cyber Co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CSIS, April 1, 2025. <https://www.csis.org/analysis/deterrence-under-pressure-sustaining-us-rok-cyber-cooperation-against-north-korea> (검색일: 2025.3.21).

- Bermudez, Joseph, Victor Cha and Jennifer Jun. “Dramatic Increase in DPRK-Russia Border Rail Traffic after Kim–Putin Summit.” *CSIS Beyond Parallel*, October 9, 2023.
-
- _____. “Activity at Najin Points to Continued DPRK-Russia Arms Transfers.” *CSIS*, December 8, 2023. <https://beyondparallel.csis.org/activity-at-najin-points-to-continued-dprk-russia-arms-transfers/> (검색일: 2025.3.7).
-
- _____. “Major Munitions Transfers from North Korea to Russia.” *CSIS Beyond Parallel*, February 28, 2024.
- Blank, Stephen and Mark Temnycky. “The Case for Stopping Russia Sanction-Busters.” *Policy Commons*, November 12, 2024.
- Brennan, David. “Putin says North Korean ‘friends’ helped Russia push Ukraine out of Kursk.” *ABC News*, April 28, 2025.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putin-north-korean-friends-helped-russia-push-ukraine/story?id=121229750> (검색일: 2025.3.7).
- Bronk, Chris. “Collaborating Pariahs: Does the Ukraine War Cement an Adversarial Cyber-Information Bloc?” *ACIG*, Vol. 3, No. 1 (2024).
- Cha, Du Hyeogn. “Implications of the DPRK-Russia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san Issue Brief*, No. 2024-19 (October 8, 2024).
- Cha, Victor. “A Threat Like No Other: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CSIS*, June 17, 2024.
- Cha, Victor, Christopher Johnstone, Ellen Kim and Nicholas Szechenyi. “The Camp David U.S.-Japan-Korea Trilateral Summit: An Exchange among CSIS Japan and Korea Chairs.” *CSIS*, August 23, 2023.
- Chae, Yun-hwan. “Thousands of N.K. laborers sent to work in Russia in 2024: S. Korea’s spy agency.” *Yonhap News Agency*, February 9, 2025. <https://en.yna.co.kr/view/AEN20250209000700315> (검색일: 2025.2.5).
- Chainalysis Team. “Russian and North Korean Cyberattack Infrastructure Converge: New Hacking Data Raises National Security Concerns.” *Chainalysis*, September 14, 2023.

- Chivvis, Christopher and Jack Keating. "How Evil? Deconstructing the Russia-China-Iran-North Korea Axis." *Survival*, Vol. 66, No. 6 (2024).
- Davenport, Kelsey. "Russia Ends North Korean Sanctions Panel." *Arms Control Association*, 2024.
- Dempsey, Joseph. *North Korea – A new eye in the sky?* IISS, 2023.
- Diepen, Vann.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38 North*, November 28, 2023. <https://www.38north.org/2023/11/modest-beginnings-north-korea-launches-its-first-reconnaissance-satellite/> (검색일: 2025.1.8).
- Dinca, M. and A. M. Dinca. "The War in Ukraine - A Long Term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and Social Order*, Vol. 318, No. 1 (2024).
- DW. "Russia supplied anti-air missiles to North Korea, Seoul says." November 22, 2024. <https://www.dw.com/en/russia-supplied-anti-air-missiles-to-north-korea-seoul-says/live-70854753> (검색일: 2025.2.2).
- Glaser, C.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rms Ra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1 (2000).
- Götz, Elias and Per Ekma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Context, Causes, and Consequence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71, No. 3 (2024).
- Hacquebord, Feike and Stephen Hilt. "Russian Infrastructure Plays Crucial Role in North Korean Cybercrime Operations." *Trend Micro*, April 23, 2025.
- Hornung, Jeffrey. "Ukraine Is Now a Proxy War for Asian Powers." *RAND Corporation*, Nov 21, 2024.
- Hosoe, Nobuhiro. "Russia following the invasion of Ukraine."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45, No. 2 (2023).
- Howell, Edward. *North Korea and Russia's dangerous partnership*. London: Chatham House, 2024.
- Hwang, T. "2024 Two Sessions: Direction of China's Foreign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KINU*, CO 24-22 (2024)
- Jankowicz, Mia. "Satellite images show Russia defying sanctions to give North Korea 1 million barrels of oil: report." *Business Insider*, November

- 22, 2024. <https://www.businessinsider.com/satellite-images-russia-shipped-north-korea-million-oil-barrels-report-2024-11> (검색일: 2025. 2.3).
- Jervis, R.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1978).
- Kennedy, Dana. “North Korean elite Storm Corps reduced to cannon fodder at Russian ‘meat grinder’ front line: sources.” *New York Post*, November 9, 2024. <https://nypost.com/2024/11/09/us-news/north-korean-elite-storm-corps-reduced-to-cannon-fodder-sources/> (검색일: 2025.1.12).
- Kim, Hyun-Jin and Tong-Hyung Kim. “Russia supplied air defense missiles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its troops, South Korea says.” *AP News*, November 22, 2024.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troops-ukraine-russia-missile-1efc0e29d5d6225fb85891ef6c822e4c> (검색일: 2025.3.13).
- Kim, Tong-Hyung and Dasha Litvinova. “North Korea’s Kim arrives in eastern Russian city for expected visit to fighter jet plant.” *AP News*, September 15, 2023.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russia-kim-putin-missile-0d70f5190df1088ebe53e8ca19f8e9c9> (검색일: 2025.3.15).
- Klingner, Bruce. *The Russia-North Korea Military Pact Is a Big Problem*. Heritage Foundation, 2024.
- _____. “China–Russia–North Korea Solidarity Poses Risk to the U.S. and Its Allies.” *Heritage Foundation*, No. 3823 (2024).
- Lee, Choong-Koo. “Putting the Screws on the Partner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ar on the Rocks*, April 1, 2025.
- Martyniuk, Yevheniia. “North Korea has supplied half of Russia’s ammunition in Ukraine—that’s 6 million shells.” *Reuters*, April 15, 2025. <https://euromaidanpress.com/2025/04/15/reuters-north-korea-has-supplied-half-of-russias-ammunition-thats-6-million-shells/> (검색일: 2025.3.12).
- McCurry, Justin. “North Korea behind \$1.5bn hack of crypto exchange ByBit, says FBI.” *The Guardian*, February 27, 2025. <https://www.theguardian.com>

- com/world/2025/feb/27/north-korea-bybit-crypto-exchange-hack-fbi (검색일: 2025.3.20).
- _____. “From ammunition to ballistic missiles: how North Korea arms Russia in the Ukraine war.” *The Guardian*, April 25,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25/how-north-korea-arms-russia-in-ukraine-war> (검색일: 2025.3.8).
- McCurry, Justin and Pjotr Sauer. “Putin and Kim confirm for first time North Koreans fought for Russia in Ukraine war.” *The Guardian*, April 28,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28/north-korea-troops-fighting-for-russia-ukraine-confirmed-kim-jong-un> (검색일: 2025.3.6).
-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 _____.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Ukraine Wa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 21 (2022).
- Mesmer, Philippe and Benoît Vitkine. “North Korea’s latest satellites rely on Russian technical assistance, experts say.” *Le Monde*, May 29, 2024.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4/05/29/north-korea-s-latest-satellites-rely-on-russian-technical-assistance-experts-say_6673068_4.html (검색일: 2025.2.9).
- Most, B. and H. Starr. “Diffusion, Reinforcement, Geopolitics, and the Spread of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No. 4 (1980).
- Newdick, Thomas. “North Korea Getting New Air Defenses In Return For Supporting Russia In Ukraine: Official.” *The War Zone*, Nov 22, 2024.
- Nitoiu, Cristian. “The path to Russia’s 2022 invasion of Ukraine: Moscow’s framing of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the West under Putin’s rule.”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1, No. 19 (2024).
- NPR. “North Korea confirms it sent troops to Russia to support its war against Ukraine.” April 28, 2025. <https://www.npr.org/2025/04/28/nx-s1-5379436/north-korea-russia-ukraine-troops-putin-kim> (검색일: 2025.3.10).
- Peters, Robert. “The Potential for Russia to Supercharge North Korea’s Nuclear

- and Missile Program.” *Heritage Foundation*, No. 3856 (2024).
- Picheta, Rob, Victoria Butenko and Anna Chernova. “North Korea sending citizens to help Russian military fight Ukraine, Zelensky says.” *CNN*, October 14, 2024. <https://edition.cnn.com/2024/10/14/europe/north-korea-russia-ukraine-military-zelensky-intl/index.html> (검색일: 2025.1.19).
- Posen, Barry. “Putin’s Preventive War: The 2022 Invasion of Ukrain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9, No. 3 (2025).
- Postol, Theodore. “The Transfer of a Russian ICBM to North Korea?” *CSIS*, August 17, 2023. <https://beyondparallel.csis.org/the-transfer-of-a-russian-icbm-to-north-korea/> (검색일: 2025.2.7).
- President of Russia.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02.07.2021 No. 400,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Kremlin*, 2021.
- Reuters. “What to know about North Korea’s spy satellite launch.” November 22, 202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at-we-know-about-north-koreas-new-satellite-claims-russian-aid-2023-11-22> (검색일: 2025.2.10).
- _____. “South Korea official says Russia provided anti-air missile to North Korea.” November 22, 2024. <https://www.reuters.com/world/south-korea-official-says-russia-provided-anti-air-missile-north-korea-yonhap-2024-11-22/> (검색일: 2025.2.6).
- Rinaldi, Jake. “North Korea in Ukraine: Analyzing Authoritarian Cooperation.” *SSI*, March 18, 2025.
- Saric, Ivana. “Russia may share advanced satellite tech with North Korea, Blinken warns.” *Axios*, January 6, 2025.
- Sharma, Abhishek. “Cyber Allies: North Korea and Russia’s cyber partnership in the post-treaty era.” *Daily NK*, July 17, 2024. <https://www.dailynk.com/english/cyber-allies-north-korea-and-russias-cyber-partnership-in-the-post-treaty-era/> (검색일: 2025.3.21).
- _____. “Russia and North Korea Join Forces in the War Against Ukraine: Global Ramifications.” *The Prospect Foundation*, December

2, 2024.

- Sokolin, Anton. "North Korea set to send 150 ballistic missiles, more troops to Russia: Kyiv." *NK News*, January 24, 2025. <https://www.nknews.org/2025/01/north-korea-set-to-send-150-ballistic-missiles-more-troops-to-russia-kyiv> (검색일: 2025.1.10).
- Shin, Hyonhee. "North Korea received Russian aid for satellite launch -South Korea lawmakers." *Reuters*, November 23, 202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north-korea-received-russian-aid-satellite-launch-south-korea-lawmakers-2023-11-23/> (검색일: 2025.2.23).
- Sokolin, Anton and Joon Ha Park. "Russian security chief Shoigu arrives in North Korea for talks with Kim Jong Un." *NK News*, March 21, 2025. <https://www.nknews.org/2025/03/russian-security-chief-shoigu-arrives-in-north-korea-for-talks-with-kim-jong-un> (검색일: 2025.2.5).
- Steven, Rosefielde. "Russo-Ukrainian war: Limits of Western economic sanctions." *Acta Oeconomica*, Vol. 74, No. 1 (2024).
-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Briefing on North Korea's Arms Transfers to Russia." October 20, 2023.
- Waltz, 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1979.
- Xu, Tianran. "North Korea's Lethal Aid to Russia: Current State and Outlook." *38 North*, February 14, 2025. <https://www.38north.org/2025/02/north-koreas-lethal-aid-to-russia-current-state-and-outlook/> (검색일: 2025.3.13).
- Yanchik, Olivia. "Putin Confirms North Korean Troops Are Fighting for Russia Against Ukraine," *Atlantic Council*, May 1, 2025.
- Yoon, Dasl. "Russia and North Korea Turn Their War Alliance Into a Propaganda Tool." *The Wall Street Journal*, May 11, 2025. <https://www.wsj.com/world/asia/russia-and-north-korea-turn-their-war-alliance-into-a-propaganda-tool-2a4c9a19> (검색일: 2025.3.9).
- Yoon, Dasl and Matthew Luxmoore. "Ukraine Says North Korean Role in Russia's War Is Growing."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16, 2024. <https://www.wsj.com/world/asia/ukraine-says-north-korea-has-growing-role-in-war-2c28e17a> (검색일: 2025.1.4).

Алимпиева, Анастасия. “Пут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Ким Чен Ына за помощ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Lenta*, 28 апреля 2025 г. <https://lenta.ru/news/2025/04/28/blagodarnost/> (검색일: 2025.3.7).

Abstract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nd the War in Ukraine

- Structural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

Damrin Youn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impact of the rapidly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 intensified after Russia's 2022 invasion of Ukraine -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shaped by the war. In response to Western sanctions and a shortage of military supplies, Russia has strengthened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 is attempting to secure military technology and break out of its international isolation through this cooperation.

Previous studies have often interpreted North Korea-Russia cooperation as either a reflection of shifting strategic dynamics in Northeast Asia or a temporary tactical alignment. However, the fact that their cooperation structurally involves a third-party war marks it as an exceptional and significant security phenomenon. Moreover, despite its expansion into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domains - such as reconnaissance satellites, missiles, and cyber warfare - there is still a lack of systematic analysis of its broader geopolitical implications. Therefore, a more precise examination of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is military cooperation is required.

Grounded in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particularly the concepts of the security dilemma and arms racing - this study reveals that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not only enhances wartime capabilities but also contributes to a regional arms race in Northeast Asia, strengthens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This cooperation thus goes beyond bilateral engagement and is assessed as a critical case that influences global power balances and geopolitical interlinkages.

연담린 — shyoun815@gmail.com

/ 관심분야: 국제정치, 러시아 정치, 엘리트 연구, 한러관계, 남북러 협력